

10.27 악법철폐를 위한 2백만 기도회에 앞서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

두 주일을 앞둔 2백만 기도회, 한 주간을 특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1. 자녀들과 함께 참여함으로 자녀들에게 거대한 말씀의 예방접종을
2. 당일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조차도 귀한 뜻에 동참하여 하나 되는 한국교회를
3. 이번 집회가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회로

※ 일주일의 줌 새벽기도를 공동대표들의 메시지로 꾸며 더 널리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10.27 한국교회 공동기도문

주님, 이 시간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가 드렸던 첫 기도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부순 주께서, 이 백성을 엮어맨 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루비 캔드릭 캐리커처(문상우 그림)

그로부터 무려 3,600명의 선교사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24살부터 28살의 피 끓는 젊음들이었습니다. 24살의 루비 캔드릭은 내한한 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어가면서 “만일 나에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백했습니다.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분칠한 별장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 살면서 방방곡곡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닌가!” 이들의 눈물과 피 흘림이 있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

른 민족들을 내주겠다.”(사 43:4, 새번역)

그런데 이런 귀하고 귀한 나라가 어찌자고 천박하고 부끄러운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머잖아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혼의 나라가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이 지금은 ‘참’ 나쁜 동성애 쓰나미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혁명(性革命) 법안 발의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립니다. 그 성에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의인 열 명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명이라도, 18세기 윌버포스와 같은 의인만 있어도 이 나라를 동성혼의 위험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다. 그가 노예무역과 수입으로 영국을 타락시켰던 ‘노예 폐지’ 법안을 이끌어냈 듯 우리에게도 영성 있는 단 한 명의 의인을 허락해 주소서. 잘못된 모든 법안들이 초기단계부터 암초를 만나 박살나게 하시고 잘못된 법안들은 폐기물 처리 되게 해 주소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이제야 무릎 꿇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3번 반복)

우주를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법적 도전들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치를 보호하며, 그 안에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닌 ‘기후 위기’라 말하는 지혜와 동성애는 ‘인권’이 아닌 ‘인간 파괴’의 죄악임을 과감하게 선포할 용기를 주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빛들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국 사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호받으며,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대로 이것이 저희의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정치에 무관심했고 무지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투표(voting)가 불의를 저격하는 총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일곱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악법철폐를 위한 2백만 기도회가 한국사회와 교회의 변곡점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이런 돌이킴을 보시고 이제라도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내 조국이 다시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서는 기회를 주소서.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료영상보기>

(충격)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하면 아동학대??

#미국MBC뉴스 #차별금지법실체

#동성혼합법화실체

월: 국가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에게 언더우드 아펜젤러에 앞서 첫 번째 방문선교사 귀츨라프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통상교섭과 선교에 실패했지만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곧 먼동이 터 ‘좋은 시대’(밝은 날)가 오기를 바란다면 꿈은 어느새 선교대국(2위), 경제강국(30/50기준 5위), 무역대국(6위), 스포츠 강국(10위), 문화강국(한류 미디어와 K-pop, BTS), 건강대국(평균 여명 1위), 교육강국(IQ 1위), 창조강국(ICT)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성장에 눈멀어 조국을 위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산야까지 깨우던 구국기도회가 사라졌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 고종황제의 목소리는 화급했습니다.

“밖엔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선교사 언더우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곧이어 헐버트가 뒤따라왔습니다. 둘은 그날 밤 왕과 함께 지냈습니다. 의사 에비슨은 고종이 먹는 음식마다 독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언더우드의 부인 릴리어스 호튼이 나서 조리를 했습니다. 고종을 호위했던 것은 정부 고관과 대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20%라 하는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1919년 이 땅의 민중이 쓴 헌법의 첫 글자가 하나님, ‘신(神)’이었습니다. 제7조에는 ‘신(神)의 의사에 의한 건국정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배불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 방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겨레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던 바울의 슬픈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서게 하소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 가정이 일어섭니다. 목회자가 무릎을 꿇으면 교회가 일어섭니다. 천만 성도들이 무릎을 꿇으면 이 나라가 일어설 줄 믿기에 이번 한 주간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성경본문: 왕하18:18, 롬 9:1~5, 출 20:1-3, 신 8:11-20

화: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위한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피어나기도 전에 발발한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전 국민이 피난민이 되고 구호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배고픔보다 서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육열은 뜨거웠습니다. 천막교실이 세워졌습니다. 폭탄을 맞아 파괴된 인



칼 귀츨라프 캐리커처(문상우 그림)

왜시설은 교과서를 찍어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교회는 구호물자와 함께 출판물도 보내 주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1952년, ‘기쁜 소식 누가복음’ 10만 부가 유엔군 군함을 타고



기쁜소식 누가복음(1952) 표지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 성벽을 표지로 하는 이 성경이 군부대, 피란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반포되고 일부 중·고등학교에선 교과서로도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자고 2025년부터 사용될 전국의 초·중·고교 신규 교과서에 성평등, 섹슈얼리티 등 성오염(성혁명)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습니다. 이 교재로 학습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로 오도하는 가르침이 버

것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안중근 의사, 정약용, 이상재, 김구 선생의 뒤를 잇는 참 교육자가 사라졌습니다.

주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노(NO)라고 말할 줄 아는 기독교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아프리카나 오지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학교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전장과 같은 학교에서 피 흘리는 자녀들이 없도록 교사들을 하늘나라 군사로 세워 주소서. 이 땅에 세워진 미션스쿨들이 스리지거나 육영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소서. 미션스쿨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소서.

성경본문: 약 3:1, 신 6:4-9, 고전 11:1, 갈 4:19, 엡 4:15-16

추가설명

- *안중근: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대동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 *정약용: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와 같은 저서를 통해 교육과 도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신채호: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조선상고사' 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족 정체성을 강조했다.
- *이상재: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한민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주성과 독립 의식을 심어주었다.
- *김구: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수: 동성애자를 위한 가족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째 기도의 날입니다. 선교 초기, 머슴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 사람 살리는 의사들이 되었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숭실학당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 축에도 끼어들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화학당을 들어가 신학문에 눈 떴습니다. 문맹국이 문화국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아시아에서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지시설이 세워지기 전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전쟁고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나그네를 돌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는 동성애자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찾아서라도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함을 알아서입니다.

주님, 동성애와 성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성전환을 시도하려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3인칭'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의 문제로 알고 애태우는 '1인칭'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3번 반복)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자녀들을(구체적으로 000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제 아이가 주님의 뜻과 떨어진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이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고,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동하며 방황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취 주셔서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법들이 아이의 마음과 가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제 아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혼란과 아픔 대신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혼란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의 진리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가정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 자녀를 지옥 같은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그 아이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본문: *고후 10:4-5, 삼하 21:7~14, 시 18:1-3, 시 91:14-15*

목: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젊은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스 부부가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첫아들을 낳자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며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광복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 조선이 해방을 맞고 신탁통치가 시작될 때 군정장관 하지 장군의 통역관으

로 한국을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 장군의 부탁으로 인재 50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중 48명 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곳곳에 들어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신타파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국방부장관은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여 군 선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제헌 국회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 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암(Frank E. C. Williams) 선교사의 3대손인 델리(Delee Willams)와 알프레드(Alfred Willams), 4대손 그라프톤 (21·Grafton Addison Willams)(우측부터)

교회가 자라면서 영적 거장들이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일사각오의 주기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기도의 선구자 길선주, 새마을 운동의 효시 김용기, 의사의 표본 장기려, 목사의 목사 한경직, 교회개혁의 선봉 옥한흠. 그런데 지금은 영적 거인들이 사라졌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옥한흠 목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주여, 구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는 세 가지 액체,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서 평양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광화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제 2의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해 주소서.

성경본문: 창18:19, 출 32:31-33, 렘 29:9, 삼하 12:13

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도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대한제국이 일제에 나라를 잃은 경술국치(庚戌國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다.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빴습다. 이런 때 선생은 어린이들에게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100년이 지나 아동복지가 더 나아져야 하는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스러져가는 생명이 끝없습다. 전쟁통도 아닌데 해외 입양은 계속됩니다. 거기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흉년에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는 부모 사랑은 옛말이 됐습다. 어린이날이 ‘부끄러운 어른들의 날’이 됐습다. 아이들이 호소합니다.

① 때리지 마세요. ② 싸우지 마세요. ③ 소리치지 마세요. ④ 차별하지 마세요. ⑤ 안아주세요. ⑥ 놀아주세요. ⑦ 끝까지 들어주세요. ⑧ 쉴 시간이 필요해요. ⑨ 나를 존중해주세요. ⑩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저희의 자녀들이 성공한 아이가 아니라 행복한 아이, 웃음도 알고 울음도 아는 자녀, 힘이 되는 자녀, 새우잠을 자되 고래 꿈을 청소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해 주소서.

성경본문: 엡 6:4, 잠 1:7, 마 19:13-15, 딤후 3:15-17

토: 가정을 위한 기도

외롭고 고독했던 루터가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내 폰 보라가 곁에 있어서였습니다. 아내의 뒷바라지에 힘을 얻은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베니스를 부츠 한 짝과 바꾸지 않듯이 나는 내 아내 폰 보라를 프랑스와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요.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이면서 곧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망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첩을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악습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앞장섰습니다. 공창 폐지, 혼인 신성, 금주 금연운동, 여성의 교육 및 지위 개선이 가정을 살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

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창18:19, 새번역)
그런데도 약속된 축복은 고사하고 출산율의 저조와 함께 가르칠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인 가
구 1천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인구 자연증가율이 0%에 그쳤습니다. 100년도 못 되어 대한
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살행
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만이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의 졸혼(卒婚), 동성애,
아동학대, 존속살해, 고독사.... 가족생태계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입니다. 큰 집, 좋은 차, 출세, 성공에 눈멀었습니다. 가정예배는 쓰레기처럼 버려졌
습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한국교회에 울려 퍼졌던 이 다짐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
로부터 존경받는 아빠·엄마가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기 앞서 형제들과 화목하겠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높여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기
회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
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
소서.

성경본문: 수 24:15, 시 127:1-3, 시 128:1-6

일: 10.27을 위한 기도

동남아의 태국은 상원에서 ‘결혼평등법’이 가결되었습니다. 머잖아 동성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 의회는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들의 자녀 입양까지 허용되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사법부에 의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상 첫 동
성애자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벌써 40여 개 국가가 법제화를 끝냈습니다. 세계 곳곳에 동성혼 합법화
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긴박성을 깨달았기에 온갖 부담을 안고 저희는 오늘 오후 광화문 광
장으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돌이키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느슨해진 교배를 조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
한국교회가 영적 행진을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처소에서 광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하늘
에 이르게 해 주소서.

북경에 나비가 펼쳐지기만 해도 태평양을 건너 뉴욕에서 태풍이 된다는 나비효과를 떠올립니다. 이제
는 ‘나’로부터 ‘비’뿜되는 작은 ‘나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대한

민국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모두 환경대사, 기후대사처럼 ‘가정 특임대사’로 임명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소서.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광화문 광장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주의 얼굴을 돌이지 마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소서.

성경본문: 스 9:1~10, 느 8:1~7, 히 11:7, 창 18:22~33, 19:7,8, 겔 3:17,18

추가되는 기도 제목

1. 10.27의 모든 일정 가운데 질서가 잘 유지되는 본을 보이게 하소서. 질서유지를 위해 동원된 경찰과 관계자들이 할 일이 없어 오히려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2. 2002년 월드컵 때에 청결한 거리 응원을 기억합니다. 이보다 더 청결한 모습으로 기독교인의 품격을 보이게 하소서.
3. 많은 인원이 동참하는 가운데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고 오고 가는 교통편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소서.
4.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진 것처럼 이 나라의 위정자들(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게 전달되어 정의가 이루어지는 본이 되게 하소서.

기도문 꾸밈: 하이패밀리 제공

대표집필: 송길원·김향숙

참여한 이들: 조재호, 이재문, 송래호, 함경아, 최진숙 연구원